



## FTA 지각생 한국도 '발등의 불'

FTA 체결 안될 경우 피해는  
체결국에 비해 높은 관세 물어 가격 경쟁력 하락

올 4월 1일 세계 14위의 수입국인 멕시코 시장을 두고 다투던 한·일 양국 기업의 명암이 갈렸다. 이날 일·멕시코 FTA가 발효되면서 멕시코에서 일본산 수입품목 중 휴대전화·TV 등 40%는 즉시 관세를 한푼도 내지 않게 됐다. 멕시코와 FTA가 없는 한국은 휴대전화, TV에 대해 각각 15%, 10~20%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코트라(KOTRA) 양은영 통상전략팀 차장은 "자동차·타이어·철강 등 한국과 경쟁 중인 나머지 일본 제품도 5~11년 안에 관세가 없어진다"며 "멕시코와 FTA 체결이 늦어

지면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코트라 조사에 따르면, 미국·캐나다·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등도 FTA 미체결국에는 관세를 높게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2003년 기준 한국의 대미수출액 중 2.56%를 관세로 냈다. 반면 미국과 NAFTA를 맺은 캐나다(0.07%)·멕시코(0.14%) 등은 관세부과율이 한국에 비해 훨씬 낮았다. 캐나다에선 한국산 섬유 제품이 13~18%의 관세를 물고 있지만 NAFTA의 일원인 멕시



▲ 지난 8월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오른쪽)과 림홍경 싱가포르 통산산업부 장관이 한·싱가포르 FTA 타결이 서명했다.

코는 무관세로 수출해 한국산 섬유제품 시장을 침식하고 있다.

관세뿐만이 아니다. 일부 국가는 FTA 미체결국에 대해 정부 발주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을 제한하거나 강도 높은 불공정 무역 조사를 벌이는 등 비관세 장벽을 동원하고 있다. 캐나다는 NAFTA 미체결국에 대해 정부 조달 계약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2002년 한국·일본 등 8개 나라의 철강 제품에 대해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서 8~30%의 고관세를 매겼다. 하지만 NAFTA 가맹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세이프가드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가 조치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